

[미국-뉴욕]캐나다 농산물 거래 단일화 추진

향후 캐나다 생산물 유통 거래 조직이 단일화될 전망이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직을 단일화 시켜 거래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고, 회원제를 의무화시키는 등의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통 자격 DRS와 CFIA로 양분화



현행 규정상 캐나다의 과일과 채소 유통의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격 요건은 오타와에 소재하고 있는 DRS사의 회원 가입, 또는 CFIA(캐나다 식품 검역 자격증) 소지자로 양분화 되어 있다.

캐나다 정부 및 DRS사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의 과일과 채소 취급업자의 90퍼센트는 DRS 회원이라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캐나다 정부는 이를 DRS 자격증 소지자에 한정시키는 방향으로 규정을 마련 중에 있다.

2015년 새 규정안 발효

프래드 웨버 DRS 회장은 2012년 캐나다 식품안전법이 발효되었고, 캐나다 정부는 현재 새로운 세부 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하였다. 올해 11월 말까지 정부는 컨설팅을 마치고, 2015년 초까지는 새로운 규정안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웨버 회장은 단일 라이선싱 조직이 마련되면 북미 시장 의 농산물 거래인들이 겪고 있는 혼란을 방지 함으로써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 단일 라이선싱 조직 추진

농수산물 거래에 있어 캐나다 정부가 이러한 단일 라이선싱 조직에 중점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일과 야채와 같은 신선 식품 거래인 들에게 공정한 거래를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지?

둘째, 회원 가입 승인에 있어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되는지?

셋째, 이러한 기능을 만족하는 회원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

신선 식품 거래 시스템, 숙원 사업

캐나다에서 신선 식품의 거래 시스템 마련은 많은 이해 관계자들에게 오래된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에 관한 법률과도 유사한 상황인 바, 여러 가지 미해결 문제점들이 아직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웨버 회장은 전한다.



사진 왼쪽부터 웨버 회장, 애스브룩 회원 담당, 무조 부회장

신선 식품 수입업자도 회원 자격 유지 필요

웨버 회장은 또한 캐나다 내의 야채와 과일 수입업자들에게도 DRC 회원 또는 CFIA 소지자로 한정하는 강제 규정을 도입해 왔다고 말한다.

2년 동안 그러한 규정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물품들에 대해 공항과 세관에 강제 하역 조치하는 일이 벌어 지기도 하였다.

웨버 회장은 DRC가 다른 회원들의 추천을 받기는 하지만, 회원제를 시행 하는 과정이 조속하고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강조 하였다.